새만금 - 東北亞 시대의 성장 동력을 향한‘ 용틀임 ’

- 「새만금특별법」통과,‘ 한국의두바이 ’기치도외국자본참여가관건 -

지난 4월 8일전북대학교에서 새만금 개발사업관련워크숍이열렸다. 워크숍에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친환경적인 저층형 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이 나왔고, 호수를테마로한섬의도시로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화훼 · 관광 · 산업이 어우러진공존의도시, 우주산업위주의 미래지향형관광도시, 실버산업 · 의료 · 교육을 통합한 관광도시, 식품산업을중심으로한물류산업도시등다양한개발안들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방향에대한논의는끝이없었다. 이곳에서논의된구상들은오는7월말까지 심의를거친다. 이르면8월 중최종안이 나올예정이다.

단군이래최대규모의국책사업으로기록될새만금개발사업에속도가붙고있다. 새만금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무려 20여년만의일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오는 8월 새만금 개발사업의최종안이나오면이를정부의개발계획에적극반영할것을요청할예정 ’이라며,“ 새만금개발사업은앞으로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갈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 ’이라고말했다.

‘ 한국의 두바이 를 꿈꾼다

지난 1987년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 전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대선공약으로발표했다. 1991년첫삽을떴지만 5년 후 새만금호 수질 논쟁이 부각되었고, 1999년민 · 관공동조사가착수되면서 공사는1차중단을맞게됐다.

정권이 네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 동안 우여곡절로 점철되었던 새만금개발사업. 이명박 정부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신항만건설, 다기능복합도시, 산업단지, 관광단지등의 개발계획을세웠다.

2년후사업이재개됐지만2003년7월서울행정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으로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2006년3월 대법원의 새만금 사업 적법 판결로 사업이 재개,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태풍과해일등에방조제가유실되지않도록도로포장을비롯해조경공사등이한창이다. 방조제 공사는 오는 2009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 새만금 은매립되는지형이마치날아가는 새 모양과 같다는 의미의‘ 새 ’와 지리적 위치인전북만경평야의‘ 만(萬) ,’ 동진강유역김제평야의‘ 금(金) 을합쳐만든이름이다. 새만금사업은33km 방조제를축조, 총 4만 100ha(4억 100만㎡) 가운데 2만 8,300ha(2억 8,300만㎡)의 토지와 1만 1,800ha(1억 1,800만㎡)의 담수호를 조성하는사업이다.

전북 부안 · 김제 · 군산 등 모두 18개 지역에걸쳐있는새만금개발사업은전북도민들의 오랜 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한국경제를이끌중요한프로젝트다. 한경제전문가는“ 중동의두바이가사막의모래위에 만들어진 기적이라면 새만금은 바다의 물위에 만들어질 기적이 될 것 ’이라며 “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로 32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새만금의 개발 방향은?

올해 초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새만금 개발사업과관련, 구체적인계획을밝혔다. 인수위가새만금을' 경제중심도시 로개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의 100배(2억 8,300만㎡) 크기인 새만금 전체 부지가운데 70%를 개발용지로한다는내용이핵심이다. 당초새만금은부지의71.6%(2만 250ha)가 농지로 개발되고 나머지 28.4%(8,050ha)가 산업 · 관광도시로 개발될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산업 개발 용지를 70%로대폭상향, 이곳을△신항만건설△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도시 △산업단지△관광단지 등으로 나눠 개발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민자유치가가능한사업부터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30만 톤급 배가 드나드는 신항만과 배후 해양물류단지는 2010ha(2,010만㎡) 규모로, 방조제주변다기능 복합부지는 455ha(455만㎡) 크기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는 각각 5,290ha(5,290만㎡)와 1,240ha(1,240만㎡) 규모로추진할계획이다.

정부관계자에따르면개발은4단계로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글로벌업무지구, 2단계는 산업자유지구및 국제물류 · 농업과학지구 조성 사업이다. 3단계는 세계적인 호텔과골프장을비롯한국제관광지구와신재생산업지구조성이고 마지막 4단계는 신시도를포함하는해상공원의건립이다.

새만금은이로써정권이4번바뀌는동안 사업 중지와 재개를 수차례 반복했던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나 한국의 ' 두바이 로 재탄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2010년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을 끝내고당초 계획이었던 2030년보다 10년앞당겨 2020년쯤 새만금 개발을 완료할 계획 "이라고말했다.

새만금, 전북경제의 밝은 미래

지난해 11월「새만금특별법」이 국회에통과되자 전북 도민들은환호했다. 갈수록줄어드는 인구에 산업 생산성마저 떨어지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없었다.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서 사업을 하는 박모(45세, 남)씨는" 그동안이지역은국가적으로추진되는개발사업과관련, 혜택을받아본적이단한번도없다 "며" 이번새만금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경기가살아났으면좋겠다 "고말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대로 새만금 사업이 순조롭게추진된다면수십만개의일자리와 수십 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지역에서는벌써부터개발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4호방조제인근내초동일대 495만㎡(160만평)에산업단지를조성할예정이다. 또현대중공업을비롯하여대규모공장들이군산 산업단지에둥지를틀고있다.

이러다보니군산지역부동산가격이폭등하고있는실정이다. 지난3 4개월사이 땅값이 평균 5 6배나 오른 지역이 태반이다. 지난2월에이어3월에도전국에서군산 지역땅값이가장많이올랐다.

군산시 관계자는 " 지난해「새만금특별법」통과이후인근산업단지에입주기업이 늘면서 미분양 산업 용지가 급격히 감소했다 "며 " 앞으로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비즈니스단지가조성되고부가가치와고용효과가큰사업들이본격 추진된다면전라북도경제는 몇단계업그레이드될 것 "이라고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정부는 규제 철폐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만금 개발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외국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외국 자본이 새만금 개발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를 가로막는 갖가지 ' 전봇대 를 뽑아야 한다. 정부가 개발 계획에서 밝힌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정책에 있어서 규제 철폐가핵심이다.

정부는 또 새만금이 새롭게 만들어진 자연이라는 점을 큰 경쟁력으로 삼고 전문가들의창의적인 아이디어를반영, 그동안볼 수 없었던 유 ·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관련정부는앞으로 인프라스트럭처투자, 미래산업 트렌드를읽는노력, 투자자유치활동등에적극나서야한다.

정부는 이 밖에 환경단체의 반발을 극복해야한다. 새만금개발사업은한반도대운하와 달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환경단체의반발은여전하다.

이외에도정부는전라북도, 군산시, 국토해양부, 농림부등여러곳에서새만금개발사업과관련해힘있는목소리를 내고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 확실한개발주체가정해져이리저리휘둘리지않고한방향으로사업을이끌어나가도록정부가앞장서야한다는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 앞으로 공항과 항만 등 새만금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며 "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최대한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고조기개발에착수할수있도록노력할것 "이라고말했다. 그는이어" 정부는오는6월까지토지이용계획안 수정안을 확정하고 중앙 부처

중심의 새만금개발주체를 확정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CJ

정진우
머니투데이건설부동산부기자